

이낙연 “美바이든 공약, 文정부 뉴딜과 일치…시장도 반응”

민주당 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2차 점검회의

“오바마케어 개선 바이오헬스산업 호응 예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바이든 당선인의 여러 공약은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려는 길과 일치한다”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르면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와 한국판 뉴딜의 정책 유사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2차 점검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린뉴딜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전기

차, 경량소재, 5G,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투자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디지털 뉴딜과 맞물린다”며 “오바마 케어도 개선한다고 했는데 조지진단 등 정밀의학, 원격진료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바이오헬스 산업과 일치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선도 기업으로 부상한 배터리, 바이오, K뉴딜 기

술 종목은 미국 대선 투표 전날부터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바이오헬스 산업은 시장으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점검회의 주제인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많이 컸고 심지어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안에 바이오 기업이 2개쯤 들어가 있다”며 “놀라운 변화가 바이오 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고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적 신뢰를 얻었다는 것 또한 크나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이 아직은 미치지 않

은 분야다. 애플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왜냐하면 데이터의 확보가 쉽지 않고 특히 미국은 안드로이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케어 복원을 선언한 것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학분야와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우리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의학 생산 능력과 제약 의료기기 특허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코로나 방역 체계와 앞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초 의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이터 활용과 건강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을 처

리하는 등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비대면 외교’ 재개하는 文대통령...릴레이 다자회의 참석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의...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발표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화상으로 열리는 5개의 굵직한 다자회의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정상외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 까지 나흘 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해 역대 경제 협력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출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다자회의 참석은 주요 20개국(G20) 특별정상 정상회의(3월 26일), 아세안+3 특별정상 정상회의(4월 14일) 개최 이후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모든 회의는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의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정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다

자회의는 매년 10~11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다자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순방을 통해 개화국을 찾곤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세안 외교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올해 베트남이 주최국이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리게 됐다.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는 다자간 협력 동력을 유지하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보건 및 방역 협력과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신남방 플러스 전략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제 협력 분야가 담길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으로 협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오전에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4일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정상회의의 성과도 점검한다.

오는 14일 저녁에는 EAS 정상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으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지상욱 “安, 주인 욕심 그만 내라” 장제원 “정권 창출위해 통합”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 아니라 어떤 세력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정권 창출을 위한 연대와 통합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그토록 적폐라고 몰아붙였던 자유한국당과는 왜 통합을 하셨나. 새로 윤보수당은 도대체 몇 번을 창당했다. 4년만에 4번인데, 9년만에 5번이 그리 잤은 것 같지는 않다”고 비꼬았다.

이는 “정치 입문 9년 만에 5번 창당? 무조건 야권이라고 모두 통합해야 혁신이 아니다. 그럼 정의당도 야권인데 통합 대상이냐”고 ‘야권 연대론’을 제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한 지 원장의 주장을 겨냥한 글이다.

지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대표를 향해 “혁신, 혁신을 내러놓아야 한다. 국민의 힘, 국민의당, 무소속 모두가 힘을 합쳐 집권하는 것만이 정권을 상납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고 말했다.

대해서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이제 그만하라. 많이 꼬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 원장을 향해 “새로운 윤보수당은 꼬고라들었던 당 아니었다. ‘국민의힘’의 주인이 되셨나”라며 “우리들의 일그러진 정치 이력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야권 인사 중 정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계파정치, 오만방자한 감벌정치, 구역질 나는 부패정치, 일인 지배의 보스정치, 피비린내 나는 학살정치, 대통령을 끌어내린 탄핵에서 문재인 정권에 깨충추다 이제야 깨닫고 넘어온 분들까지 모두가 문재인 정권 창출에 큰 역할을 한 죄인들 아니냐”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모두가 겸허하게 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힘, 국민의당, 무소속 모두가 힘을 합쳐 집권하는 것만이 정권을 상납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고 말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